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눈이 와 있다. 강물 위로 나온 검은 돌들 위에 눈이 소복하다. 하얀 눈이 마을을 고요하게 덮고 있다. 조심 조심 강을 건넌다. 마을을 걸어 나온 내 발자국을 뒤돌아 바라보고 서 있다. 강물을 따라 걸었다. 눈은 기반 가만 온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따뜻해지는 나의 마음을, 이 온기를 이해하여 마을에 담고 새 나가지 않게 오래 오래 보관하기로 한다. 그곳에서 따뜻한 내 손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을 나는 걸으면서 배워 왔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세상에 마음을 다 쓰자. 이 글이 산책을 나서는 나의 첫 마음이고 조심하여 울해 내 첫 글이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기쁨이 슬픔을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글이 중요하지 않다. 삶은 지나 가나니, 덧없다. 무정하다. 소용이, 내가, 어디에, 무슨 소용인가. 때로,

아름다운 산책

써 놓은 내 글 속으로 내가 들어가 편안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고 세월은 흐르고 그때도 저 산에 바람은 저렇게 불고 눈은 내리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은 저번 노을로 시를 쓸 텐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언제 너를 사랑하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

길 위 관목 숲에서 나무 쪼는 소리가 났다. 오색 딱따구리다. 검은 꼬리 밑 부분에 진 분홍색을 뽐내는 다섯 가지 색의 몸을 가진 새다. 땅 위를 뿔뿔 서 있는 나무 몸을 타고 뱅뱅 돌아 뛰어오르며 쫓는다.

숲에 눈송이들이 내리고 숲은 조용한 아름다움을 가져왔다. 큰 눈송이다. 눈송이가 막 타 놓은 솜처럼 성글고 희어서 세상의 어디에 닿아도 소리가 없다. 산을 그려주며 산을 지나온 눈송이들이 강으로 내린다.

눈을 감고 고요하게 서서 풀숲에 눈 오는 소리를 듣다가 가만히 눈을 뜨고 눈송이들을 따라 강가로 걸어가다. 눈송이들은 지상으로 내려오며 자신을 응시하고 자기의 태도를 생각하며 내릴 지점을 골라 희게 앉는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가. 흔적도 없이 허공을 지나온 눈송이들은 강물에 내리는 소리도 파문도 만들 줄 모른다. 가치를 가져오는 곳이 허망과 허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눈이 그쳤다.

한 시간 쯤 강물을 따라 걸다가 다른 길로 강물을 거슬러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웅달이어서, 눈이 녹지 않았다. 새와 짐승들과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다. 발자국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딛고 어디를 갔다.

쥐 오리가 물질을 한다. 물속으로 쏙 잠수하였다가 어디만큼 가서 물 위로 퐁 나와 동그랗게 퍼지는 파문의 중심에 동동 떠 있다. 쥐 오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퐁 나온다는 이 '퐁'이라는 말에서는 명랑하고 기분 좋은 물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 쥐 오리가 잠수하면 가만히 서서 저 아이가 어디로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지만 내 예상은 항상 빗나간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인다. 몸이 희고 검고 작은 할미새가 쫓지를 까뭇뭇 바람에 밀리는 살얼음 가장자리에서 얼어붙은 풀잎을 쫓고 있다. 새의 무게로 살얼음이 밀리며 살얼음이 쟁쟁쟁 소리를 낸다. 너무 멀리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다. 천천히 타박타박 걷다가 터덜터덜 걸었다.

집에 도착하였다. 마른 빨래를 개고 나서 새로운 빨래들을 탈탈 털어 종류와 크기와 모양을 따져 귀와 모서리들을 찾아 맞추어 가며 체계적으로 널었다. 누가 보기에든 좋게, 예술적(?)으로 빨래를 널려고 노력한다.

노력은 모든 일들을 익숙하게 하여 노련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으며 삶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정돈의 기쁨은 일상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 빨래를 잘 널고 나서 손을 툭툭 털면 내가 내게 쳐 준 박수 같아 좋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마을, 아침 산책이 나는 좋다.

社說

전남 해조류, 미래 에너지 핵심 자원 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손을 잡고 전남에서 대형 해조류 양식을 통해 탄소 흡수와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자원에 나선다. '한-미 해조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은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과 한국 해양수산부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으로, 두 기관은 각각 3000만 달러(한화 약 410억 원)를 투자해 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외해(먼 바다)에 대형 해조류 양식장을 지어 생산된 해조류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 원장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어제까지 이를 일정으로 해남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 등을 방문해 해조류 육종 및 양식 기술, 해조류 신제품 개발 및 산업화 과정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전남이 한국 해조류의 90%를 생산하는 전례의 입지인데다 뛰어난 해조류 양식 기술을 가진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실했다.

다시마 등 해조류는 나무에 비해 탄소 흡수량이 10배에 달한다. 미국이 전남에 주목하는 이유다. '탄소제로'가 지구온화 두인 상황에서 전례의 입지를 가진 전남에서 대량으로 해조류를 양식해 탄소 흡수에 활용하고 나아가 바이오매스로 가공,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해조류는 바이오 플라스틱, 헬스케어 소재, 대체육 등 활용 범위가 다양한 전반기외 해해 및 미래 에너지와 바이오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그 중심에 전남이 있다니 자랑스러운 일이다. 양국 정부 연구진이 전남에서 인류의 미래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예산 끊겨 문 닫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센터)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가 노동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17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입구에는 지난 1일부터 문이 닫는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2014년 개소해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을 도운 지 10년만이다. 센터가 문을 닫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71억 원)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센터를 포함한 전국 9곳과 소지역 35곳(광주 3곳·전남 4곳) 등 총 44곳의 지원센터가 업무를 중단했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과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임금체불, 일부 업주에 의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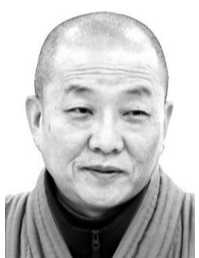
당 대우 등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서 당장 비자문제에서부터 임금체불, 산재처리 등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 노동 현실을 외면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노동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16만 5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이들의 정착을 위한 센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되레 최소한의 안전망을 없앤 것이다.

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이제 외국인 300만 명이 거주하는 다인종 국가가 됐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신용을 권하는 불신사회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벌써 한 달이 다 된 일이다. 2023년 12월 12일, 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부고 안내 문자가 최근이었다.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실제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대형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는 없다. 어쨌든 여러가지 취한 조치 중 하나가 신용카드의 도난 신고였다. 말짱하게 잘 있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지갑을 다시 꺼냈다. 아무 생각없이 카드를 내밀던 일상이 주섬주섬 돈을 건네 주고, 또 기다렸다가 거스름돈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요즘은 아예 카드로만 결제하는 가계도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키오스크 혼자 덩그러니 서있는 가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테이블에 앉으면, 직원은 오지도 않고 대신 태블릿 같이 생긴 단말기만 뿔뿔뿔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계도 많다. 줄지에 시대에 뒤쳐져서 세상물 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확실히 신용카드가 편리한 편이다. 그런데 가끔씩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사실 카드 거래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다. 뭘가 오가는 현물이 없

는 것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는 복잡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융전산망 어디에서 나의 '잔액' 항목에 기재된 숫자가 커피값만큼 감소할 것이고 대신 카페사장님의 '잔액' 항목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카페 사장님이 나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이유는 나와 그가 금융전산망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손바닥보다도 훨씬 더 작은 불꽃없는 플라스틱 조각을 매개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신뢰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런 신뢰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경제시스템과 금융전산망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회는 곧바로 붕괴하고 만다. 기실 알고 보면 이 사회는 구성원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 같은 존재이다. 일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특성 때문에 금융전산망에 대한 신뢰가 쉽사리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탓이다. 하긴 지진이 나서 통신은 고사하고 전기도 다 끊어진 비상 상황에서 신용카드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는 받지도 열어보지도 않는다. 보이스피싱 덕분에 전화 너머의 사람들과 문자 뒤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믿음 신(信)은 사람 인

(人)과 말씀 언(言)이 합쳐진 글자이다. 어원을 따져 보면 말씀 언(言)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축문과 신의 계시를 담은 말을 의미한다고 한다. 신(信)은 원래 편지를 의미했다고 한다. 즉 "축문은 믿음만 하고 신의 계시는 마땅히 믿어야 하나 사람의 말은 그에 비하면 믿을 것이 못된다. 하지만 편지는 중요한 정보를 담아 믿음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라는 의미로 발전했다고 한다. 전하니 문자는 곧 우리 시대의 편지에 다름 아니다. 이들 역시 믿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믿음이 없다면 지금의 나처럼 무용지물이다.

알짜이 공자는 '無信不立(무신불립)'이라 하였다.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논어의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고도로 발전한 문명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은 바로 믿음에 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믿음 위에 건설된 이 모든 것들을 원래부터 그런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 당연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용카드의 핵심은 신용에 있다. 아마도 믿고 쓰라고 신용(信用)이라는 두 글자를 이룸에 넣은 모양이다. 현대사회의 편리함을 믿음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믿음을 무기로 오늘날의 강력한 문명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불신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참으로 인간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고

한국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단상



루이스 민치게리
전 호남대 영문과 교수
강사랑환경대학 참여활동가

고등교육의 글로벌 지형에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독특한 도전과 기대의 집합체로 보인다. 한국에서, 광주에서 20여년 살다보니 미국과 한국의 대학교수를 역임한 이로서 한국의 대학 입시 과정의 일부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그 복잡한 시스템을 헤쳐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내가 느낀 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치열한 경쟁은 한국 대학 입시의 특징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에 대한 무게감은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 올 것이다.

물론 학업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교과외 활동, 그리고 리더 역할이나 기타 다양한 경험은 균형 잡힌 개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학생들은 학업 성취와 개인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융통성이 결여된 전공 선택이나 학과목 선택 과정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전해야 할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줄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탐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비교적 유연한 미국의 커리큘럼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종종 학업 시작 초기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다.

학생들은 학제간 연구 기회를 활용하고 인턴십에 참여하는 등 특정 분야에 전념하기 전에 더 넓은 시각을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멘토링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다 한국 사회의 명문 대학에 대한 강조는 입시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 명문 대학에 다니는 것이 확실시 더 큰 기회를 열어줄 수는 있지만, 성공은 졸업장에 적힌 학교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기억해야 한다. 개인적 성장을 강조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똑같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의 학부모와 교육자를 포함한 기성 세대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진정으로 향상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한 지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교수법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적 주제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강점과 재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자는 학업 성취와 더불어 이들의 취미, 관심사, 인격적 발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육자, 정부 및 기타 관련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그 제도만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개인적, 학문적 성장을 위한 귀중한 기회 또한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개인적 발전과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통합적 사고와 접근 방식으로 입시 과정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입시 과정을 극복했을 때 학생들은 비로소 특정 대학에 입학이라는 당장의 목표 달성을 넘어 미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영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無等鼓

지구촌에는 다양한 바다가 있지만, 색상에 민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거나 빨강다는 이유로 흥해나 흑해에 대한 환상이 있다. 바다는 대부분 파란데, 이는 바닷물이 파랗기 때문이 아니라 빛의 산란 현상이 원인이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같은 자연 현상에서 벗어나 '바다는 파랗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린 바다가 흥해와 흑해인 것이다.

붉은 바다인 흥해(紅海)는 아프리카 북동부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해역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들이 그곳을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세계 물류상 중요한 곳이다.

지리적 특성상 흘러 들어오는 강이 없는 탓에, 남조류가 많이 증식 한데다 물의 흐름까지 완만해 붉은 빛을 띤다. 흑해(黑海)는 유럽 남동쪽에 자리한 바다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외해와 연결되지 않았던 호수가 됐을 것이다. 바다보다는 호수에 가까운 지형이어서, 다른 바다에 비해 염도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데다 바깥 바다와의 교류가 적기 때문에 산소 용존량도 부족하다. 특히 물속 깊은 곳에

는 산소 결핍으로 인해 죽은 박테리아들이 쌓여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황화수소가 검은색을 띤다. 흑해란 이름이 붙게 된 이유다.

이중 흥해는 '흥해의 기적' 또는 '모세의 기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흥해의 기적은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가 흥해를 가르니 기적을 일으킨다. 이같은 바닷길 갈라짐 현상은 전남 진도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전설이기도 하다.

100여일 이상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의 불뿔이 흥해까지 튀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흥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 급기야 미국·영국이 예멘의 후티 근거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자 후티가 보복성 공격을 강화하는 등 대립 양상이 격렬해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붉은 흥해가 부디 살상으로 인해 피로 더 벌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채희종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80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